



강정아
히스테리안 대표

“어릴 적 수업을 마친 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내게 도서관은 안전하고 포용적인 장소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은평구 주민들이 직접 세운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두루 모이는 만남의 장이기도 한 도서관이다. 마침 도서관이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시 개최를 제안했는데, 도서관에서 열린 태도로 전시를 대하는 데다 200여 점의 인쇄물을 분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은 장소에서 파이카의 작업물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



이수향
파이카 공동대표

“그간 무수히 많은 출판물을 만들었지만 여러 독자에게 선보일 기회가 없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고되었지만 개막을 하고 관람객이 찾아오니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하다. 올해 하반기에도 몇 차례의 전시가 더 남아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

27 문장부호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웨어 컬렉션



1



2

프랑스 디자이너 콩스탕스 귀세 Constance Guisset가 안경 브랜드 모델Morel과 협업한 아이웨어 컬렉션을 선보였다. 디자이너는 캘리그래피에서 느껴지는 빛과 그림자의 교차, 선의 미묘한 굴곡이 시야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구했고 이를 프레임 디자인에 반영했다. 안경은 앞음과 두꺼움이 교차하는 부드러운 곡선과 미묘하게 겹쳐지는 컬러를 특징으로, 착용자의 얼굴 위에서 하나의 건축적 구조물로 기능한다. 모델명 'Esperluette', 'Virgule', 'Parenthèse'는 각각 앰퍼샌드, 콤마, 괄호를 의미한다. 컬렉션 이름을 문장부호에서 차용한 것은 안경이 언어처럼 리듬과 의미를 지닌다는 발상과 맞닿아

있다. 안경을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시적 감각을 매개하는 일상의 오브제로 승화시키고자 한 디자이너의 의도다. 1880년부터 시작된 모델의 정밀한 제작 노하우와 콩스탕스 귀세의 개념적 디자인이 결합한 이번 컬렉션은 시야를 새롭게 정의한다.
글 양윤정 통신원 담당 김지아 기자

- 1 앰퍼샌드의 부드러운 곡선 형태에 착안한 안경.
- 2 괄호의 대칭을 모티브로 한 안경.

디자이너 콩스탕스 귀세,
constanceguisset.com
사진 © Vincent Leroux, DA Constance Guisset Studio
웹사이트 morel.com